2020년 12월 20일[제 40권 51호]

Two Wings 1500 Vision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예일교회

담임목사 강승신

경기도 부천시 자봉로56
전화 032.345.8031-2
팩스 032.345.8033
홈페이지 www.ylch.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일교회

큰날개 주일예배

	전통예배	축제예배 오전 11:00	젊은예배 오후 1:30
찬양과 경배	예배로의 부름 찬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노피어 찬양단 찬양 예수 아름다우신
고백과 헌신	기도 정일숙 권사 성도의 교제		기도 김민수 형제 광고 및 환영
말씀과 결단	요한복음 15장 1~7절 (신약 172) 열매 맺는 인생 설교 담임목사		
축복과 파송	봉헌 거리마다 기쁨으로 축도 담임목사		봉헌 나의 안에 거하라 축도 담임목사

공동체예배 15:00

행 6:1~7
그리스도의 일꾼
설교 담임목사

수요기도회 19:30

가정 예배

12월 예배위원

[다음주 기도]	[봉헌]
축제예배 임경진 집사	전통예배 박선희 정일숙
젊은예배 고진희 간사	축제예배 박용수 조충식
성탄예배 이성근 장로	이은숙 정기숙 한영자
송구영신 이승길 장로	젊은예배 옥임석 한상익

1월 봉헌위원

[전통예배]	[축제예배]
장미경 한미라	서동협 정오영 김미정 김순매 최현순

오늘의 말씀

열매 맺는 인생

[요한복음 15장 1~7절]

첫째, 가지가 나무에 (　　)야 열매를 맺습니다.

둘째, 가지가 (　　)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날개 목장나눔

돌보는 교회

[히브리서 10장 24-25절]

W
WELCOME
환 영

ICE BREAK를 해봅시다.

W
WORSHIP
경 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뢰하며 기도합시다.

W
WORD
말 씀

어느 신문에 '비참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독특한 제목의 기사가 기제 된 적이 있다. 그 내용은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하라. 당신에 관해 이야기를 하라. '나'라는 단어를 가능한 자주 사용하라. 상대방의 의견 속에 당신 자신을 계속 반영하라. 사람들이 당신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놓치지 말고 들어라. 당신을 비판하면 용서하지 말라. 아무도 믿지 말고 자신만 믿어라. 배려와 존경받기를 주장하라. 무엇이든 당신 의견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라. 만일 당신이 보여준 친절에 감사하지 않거든 화를 내라. 당신이 남에게 베푼 봉사를 결코 잊지 말라. 가능한 한 당신의 의무를 회피하라. 남을 위한 일을 가능한 한 적게 하라." 였다.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처럼 세상을 '나'중심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이타적인 삶을 살면 행복이 찾아온다. 교회는 돌봄의 공동체다. 하나님은 서로 돌보며 사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또한 돌봄은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Q
QUESTIONS
질 문

1.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민수기 6장 24-25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

2.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살펴보자.

3. 셀가족이 정착하지 못한 새가족과 장결가족(장기 결석자)을 돌볼 때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된다.

4. 돌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W
WITNESS
증 거

이번주 행복모임의 진행현황과 베스트와의 관계맺기에 대해 서로 나누어 봅시다.

W
WORK & PRAYER
기 도

돌봄이 필요한 목장가족이 있는지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1) 문제를 맡기며 기도
2) 베스트와 행복모임을 위해 기도
3) 치유와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
4) 축복기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1)

– 두날개 6호 단기선교사 이광수 선교사 –

안녕하세요. 6호 인도 단기선교사 이광수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2일에 인도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처음 제가 단기선교를 서원했던 것은 필리핀 아웃리치 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를 미루다가 작년 1월 인도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이 선교에 부르심을 강하게 느꼈고 인도로 단기선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도에 왔을 때는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인도를 향한 주님의 강력한 사랑을 느꼈고 그렇기에 거기에 합하는 선교사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만큼이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처음 겪게 된 어려움은 바로 언어였습니다. 영어가 미숙한 저로서는 원하는 만큼 소통을 하지 못했고 그로인해 조금씩 움츠러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게 된 계기는 바로 영어 기도였습니다. 유재민 센터장님은 이런 저의 모습을 아시고 함께하는 모임이 있으면 꼭 저에게 영어로 대표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낯선 영어기도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 영어 또한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며 느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도였습니다. 제 사역의 원동력이 되는 말은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 나가는 것은 만나는 영혼도 죽이고 나 스스로도 죽이는 일이 된다'는 센터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교지에 전도를 하며 셀가족을 심방할 때마다 느낀 것은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적으로 꽉 막힌 인도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인 내가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인도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세계 4대종교라는 힌두교에 근원지 이며 3억개의 신이 존재하는 곳에서 전도를 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그들에게는 기독교 또한 여러 종교 중 하나의 종교, 하나의 신으로만 인식되어 그들의 문화를 뚫고 변화가 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두날개 훈련 프로세스와 행복모임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인도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신분은 최하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삶을 전부 포기하는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델리교회에는 그러한 삶을 뛰어넘어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선포하고 헌신된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 삶의 현장에 나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모습을 보며 복음의 절대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전도를 하며 제일 훈련된 영역이 섬김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섬김은 단순히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어떻게 섬길 것이지 매일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심방을 갈 때도 각 심방에 목표를 정하고 심방 후 결과를 체크하여 목표에 맞는 심방을 했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섬김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이를통해 섬김에 방향과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첫 심방은 유초등부 심방이었습니다. 저희 인도는 처음 사역을 배정받을 때 후임기수는 유초등부를, 선임기수는 청소년부를 맡게 됩니다 인도 아웃리치를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유초등부 친구들은 영어가 통하지 않고 오직 힌디어만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갔을 때 만 해도 예배인원이 12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34기가 인수인계를 받은 2주 만에 예배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계속되어 3주가 넘어갈 때는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심방하기로 작정하고 매일같이 심방을 하러 갔습니다. 심방의 목표는 아이들이 모두 예배를 회복하여 오는 것이었고 매일마다 심방할 인원을 정하여 상황을 물어고 준비된 간식으로 아이들에게 예배를 권면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고 동네에서 불규칙적으로 오는 아이들이라 사는 곳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아이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델리투윙스를 외치며 다녔습니다.

사실 정말 단순해보일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매일같이 길을 돌아다니며 많은 아이들이 그 구호에 반응하였고 그 아이들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부모님과 동네 주민들마저 심방하며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인도도 잘 모르고 아이들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심방이 될까 걱정했지만 한 주 만에 아이들이 모두 돌아왔고 심지어 동네에서 저희가 만나게 된 부모님의 아이들까지 보내주셔서 심방 후 두 번째 주에는 150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예배에 왔습니다. 그렇게 심방을 통해 아이들이 예배가 회복되며 전도까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 다음주에 계속 –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복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7~28).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하여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저주와 형벌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성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영국의 왕 에드워드 8세는 총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미국인 과부 심프슨 부인을 사랑하여 왕위를 버리고 결혼하여 윈저공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세기적 사랑이라고 떠들썩했지만 성탄절은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 된 사람을 위해 하늘의 영광스런 보좌를 버렸습니다. 창조주이신데 친히 만드신 피조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피조물처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큰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차별없이 모두 받게 하셨습니다.

성탄은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선언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자연을 통하여, 때로는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성탄은 그 모든 방법을 접고 당신이 친히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인데 생명의 떡이신 분이 떡집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은 짐승이 사는 곳입니다. 왕궁이나 거

대한 저택, 호위병들이 지키는 곳이라면 아무나 마음놓고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구간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만 아니라 짐승들도 드나드는 곳입니다. 죄인, 신분이 낮은 사람, 가난하고 병든 사람, 사람 취급 받지 못하는 사람까지 예수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곳은 목자, 동방박사, 왕, 귀족, 고관, 누구든지 자기만 낮추면 구원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금이나 보석으로 장식한 그릇에 담겨 있다면 아무나 손쉽게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이 고귀한 보물 생명의 떡을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은 자격없는 나를 구원하시려는 표현이 안되는 사랑입니다. 비록 구유이지만 그릇만 보지말고 그 안에 담긴 보물,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면 모두 엎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성탄절은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세계적인 명절이 되었습니다. 일부 사찰에서도 "축 성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위한 것으로 여기면 계속 작아지고 결국 소멸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기쁨과 감격이 커지고 대단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북유럽에 해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빼앗은 물건을 골고루 나누었습니다. 그 습관이 복음을 받아서도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북유럽의 선진화를 이루었습니다. 복음은 나누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 불신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성탄이라고 알려야 합니다. 결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성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금주 도고기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

1.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2. 새가족들을 위해서
– 전도된 새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여 한가족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 코로나가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온 나라가 회복되고, 안정을 찾게 하소서.

3. 선교사를 위해서
–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소서. 러시아로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주어진 사역들 순조롭게 잘 감당케 하소서.

성도를 위한 기도

1. 이광수 간사
– 1년 동안 간사로 섬기게 세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헌신하는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더 하셔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움으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소서.

2. 권진희 집사
– 올해 불규칙한 학업 생활 가운데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교 생활을 해왔는데 한해 마무리가 잘 되어지게 하소서. 내년에 만날 선생님과 친구들을 잘 만날 수 있고 새학기 잘 적응되어지도록 인도하소서.
– 남편이 계속 재책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 업무 잘 감당하고 프로젝트 잘 마무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금주의 감사

–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날마다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 주의 은혜로 초청주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한 가족 되게 하소서.

– 다쳐서 통증있던 무릎을 치유기도를 통해 치유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주님게서 베푸신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 언니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 온전히 주님 앞에 1년을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쓰임받는 1년을 간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번주 소식

1. 오늘 공동체 예배 때는 제직 및 임직 훈련이 진행됩니다. 제직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오늘부터 홈커밍데이(해피투게더)가 진행됩니다. 각 목장에서는 장결가족, 정착하지 못한 새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3. 성탄전야축제는 이번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성탄감사예배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4. 2021년 두날개 국제컨퍼런스가 2021년 1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다음주일까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 : 2만원, 신청 및 문의 : 양육훈련국 강미령 국장)

5. 2021 두날개 세이레 새벽기도회가 "눈을 들어 밝히 보라!"는 주제로 12월 28일(월)부터 2021년 1월 17일(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6. 오늘 공동체 예배(3시) 후에 연말 제직회로 모입니다. 제직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다음주 축제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 모입니다.

8. 2021년 1, 2월 셀라이프를 주문 받습니다. 오늘까지 목자 또는 훈련국(담당 : 나승미 팀장)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권 5,000원 / 연간구독 30,000원)

9. 2021년 교회 달력이 발행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한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0. 1월 한가족 환영식 축가는 청년A-4, A-5 목장입니다.

다음주 봉사

[청소]

본당 : 여성C-4목장(이은숙 목자)

준2층,계단 : 여성D-2목장(나승미 목자)

2층 : 여성B-4목장(임영미 목자)

3층 : 여성A-3목장(한미라 목자)

비전홀, 멀티룸, 화장실 : 청년공동체

환영합니다

20-23 박숙이 성도 (인도자 : 박현숙 권사
섬김이 : 이미정 집사)
20-24 박혜숙 성도 (인도자 : 박현숙 권사
섬김이 : 김미정 집사)
20-25 승철영 성도 (인도자 : 김영일 집사
섬김이 : 박원찬 집사)
20-26 김영옥 성도 (인도자 : 김영일 집사
섬김이 : 김향화 성도)
20-27 김학병 성도 (인도자 : 김영일 집사
섬김이 : 김영일 집사)
20-28 김우신 형제 (인도자 : 김은숙 간사
섬김이 : 이광수 간사)

우리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세계비전을 품고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날개는 전체가 모여 감동적인 축제로 드리는 대그룹의 축제예배이며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으로 모여 삶을 나누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목장모임입니다.

이 땅에 어둠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는 동안 그들을 찾아 쉬지 않고 섬기고
복음전하며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알곤으로세우기 위해 앞장서며 열정으로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예배시간

전통예배	주일 오전9시
축제예배	주일 오전11시
젊은예배	주일 오후1시 30분
공동체예배	주일 오후3시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7시 30분
새벽기도회	주일 - 금 새벽5시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9시 30분
유아부	주일 오전11시
유초등부	주일 오전9시
청소년부	주일 오전9시
작은날개모임	목장별 정한시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강승신 장 로 이성근 이승길
전도사 장효진
원로목사 강경원 원로장로 최기준

온라인으로 예일교회를 만나는 방법

스마트폰 QR코드 어플을 사용하세요.
홈페이지 www.ylch.org
모바일홈 m.ylch.org
페이스북 Yeil0691 Church
KT올레TV CH888, 예일교회 검색
온라인 봉헌 농협 351-0446-923973(예일교회)

마을버스
51, 51-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시내버스
5번, 12번, 20번, 5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75번 (역곡 남부역 하차)

시외버스
83번, 88번 (역곡 남부, 괴안동 입구)